

-더라고요

~더라고요 — 직접 겪어 보니 ~했다

과거에 직접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합니다. 근거는 반드시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 하며, 이 조건 때문에 자신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더라고요	맛있다 → 맛있더라고요
ㄹ 어간은 ㄹ 유 지	-더라고요	만들다 → 만들더라고요
과거	-았/었더라고요	갔더라고요
이다	-(이)더라고요	학생이더라고요
반말	-더라	맛있더라
쓸 수 없는 경우	자신의 감정	저는 배고프더라고요(×)

■ 언제 쓰나요

어떤 어간에는 -더라고요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, ㄹ은 유지됩니다. 앞에 시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: 갔더라고요. 반말은 -더라이며, -던데요 가까운 표현입니다.

'내가 직접 보았고, 그것이 새로운 사실이었다'는 뜻입니다. 그 식당 정말 맛있더라고요는 직접 가서 맛보고, 그때 알게 된 것을 지금 전한다는 뜻입니다. 남에게 들은 정보에는 쓸 수 없으며, 그때는 다음 표현을 씁니다: -대요.

학습자들이 놀라는 제약은 자신의 감정이나 속성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. 저는 배고프더라고요는 틀립니다. 자신의 배고픔은 밖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돌이켜 본 자신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.

-네요와 비교하면 차이는 시간입니다. -네요는 지금 눈앞의 일에 반응하고, -더라고요는 이전에 알게 된 사실을 전합니다.

■ 예문

- 1 어제 가 봤는데 그 식당 정말 맛있더라고요.
- 2 아침에 나가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.
- 3 그 사람이 한국어를 아주 잘하더라고요.
- 4 가 보니까 벌써 문을 닫았더라고요.
- 5 그분이 우리 선생님 친구시더라고요.
- 6 직접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.

■ 비교

-네요

둘 다 새로 알게 된 것을 나타내지만, -네요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-더라고요는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. 지금 보고 있는 것에는 -더라고요를 쓸 수 없습니다.

맛있네요! (지금 맛보는 중) / 맛있더라고요. (전에 먹어 봤다)

-대요

-더라고요는 직접 목격했어야 하고, -대요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합니다. 잘못 쓰면 정보의 출처를 잘못 전하게 됩니다.

맛있더라고요. (직접 먹어 봤다) / 맛있대요. (맛있다고 한다)

-았/었어요

일반 과거형은 사실을 전하고, -더라고요는 그것을 알게 된 일로 표현합니다. 후자는 듣는 사람도 놀라움을 함께 느끼게 합니다.

문을 닫았어요. (닫혀 있었다) / 닫았더라고요. (가 보니 닫혀 있었다)

■ 주의

✗ 저는 그때 정말 배고프더라고요.

○ 저는 그때 정말 배고팠어요.

자신의 배고픔은 밖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. 이 어미는 자신의 감정과 속성에는 쓸 수 없습니다.

✗ 그 식당이 맛있더라고요. 친구가 그랬어요.

○ 그 식당이 맛있대요. 친구가 그랬어요.

-더라고요는 직접 경험했다는 뜻입니다. 들은 이야기라면 -대요를 쓰세요.

✗ 지금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.

○ 지금 밖에 비가 오네요.

이 어미는 과거에 알게 된 사실을 전합니다.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것이라면 -네요를 쓰세요.